

Energy Snapshot

Analyst. 손지우

3773-8827 jwshon@sk.com

석유기업 도산을 기다리는 ExxonMobil?

2016-01-18

미국 주요 세일(에너지) 독립생산업체의 시가총액 현황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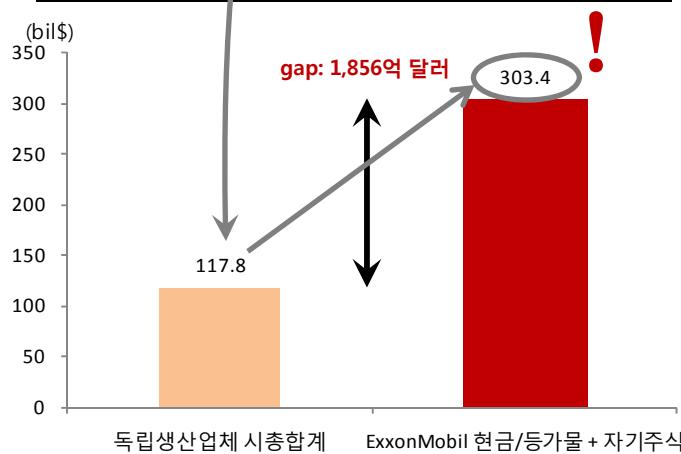


결론

300조원이 넘는 ExxonMobil의 풍부한 현금성 자금, 무너지는 북미 세일 독립 생산업체 M&A를 노릴 수 있음

- 2000년 이후 시작된 미국 세일 혁명의 수혜를 누렸던 북미 독립생산업체, 최근 재무위기 불거지는 상황임
- KinderMorgan, Anadarko, Continental Resources, Chesapeake 등 주요 12개 기업 현 시총합계 \$1,178억

그것 대비 '왕 중의 왕' ExxonMobil의 현금 및 자사주 가치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, 전 세계 E&P '왕 중의 왕'인 ExxonMobil의 현금/등가물 + 자기주식 가치 합계가 무려 \$3,034억이라는 것임
- 즉 상기 12개 주요 독립생산업체 시가총액 합계 대비 가용현금이 \$1,856억, 2배 이상이나 많은 상황
- M&A에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임. 90년대 장기 저유가 cycle 당시 M&A rally를 재현할 수 있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손지우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투자판단 4단계 (6개월 기준) 25%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